



2026년 9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인도 방문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최근 양국 관계의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평가된다. 인도와 중국은 2020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을 계기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으나, 2024년 10월 이후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는 양국 간 경제·외교적 협력 필요성을 높이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정상은 큰 틀에서 국경 안정과 인적·비즈니스 교류 확대, 무역 불균형과 공급망 문제 해소 등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신규 협력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회담의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FDI 및 기술협력 확대 기대

이번 회담의 단기 성과보다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FDI와 기술협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육상 국경 인접국(LBC, Land Bordering Countries)의 FDI에 대해 정부 사전승인을 의무화했으나, 올해 5월부터 LBC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자동승인 경로를 허용했다. 이후 8월 20일까지 총 29건, 약 5억 달러 규모의 FDI가 신고되어 규제 완화가 실제 투자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또한 자본재, 전자부품, 태양광 등 전략 제조업에 대해서도 LBC의 투자 제안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두 조치 모두 형식상 육상 국경 인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이지만, 투자 규모와 제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중국계 자본과 기술 유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가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제조업 고도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 왔지만, 핵심 부품과 중간재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제조업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생산 확대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의 현지화, 국내 부가가치 제고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략적 경계감 유효해 단기간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가능성에 주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인도 입장에서 제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양국 간 전략적 경계감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나 기술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관계 정상화와 투자 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과 진입장벽도 점차 낮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기술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양국 관계의 추가 개선 여부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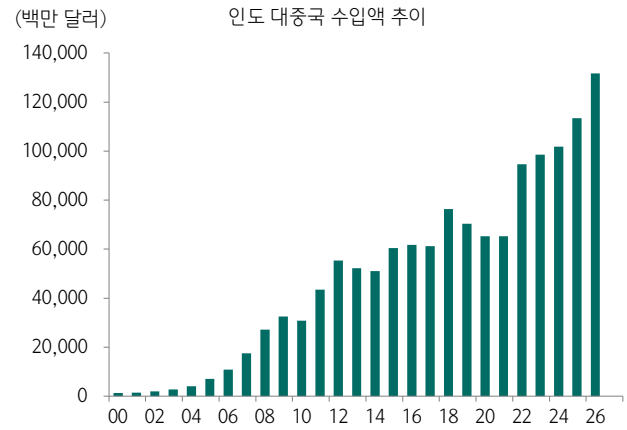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도표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인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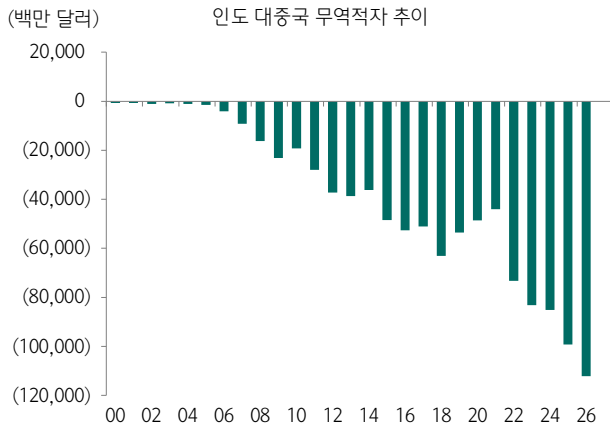
자료: 현지 언론,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대중국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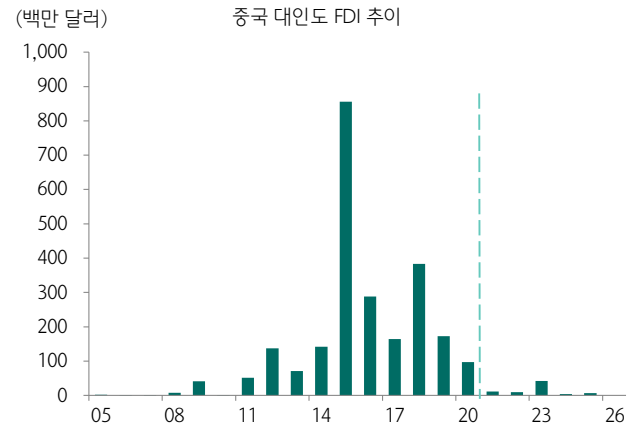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4. 중국 대인도 FDI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